



[소비동향] 밀레니얼 세대, 우유 소비 감소세

- 유당불내증,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식물성 대체우유 선호 추세



밀레니얼 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자리 잡으며, 그들의 소비 습관이 유제품을 포함한 식음료부터 웨딩산업까지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의 경제 포털인 야후 파이낸스(Yahoo Finance)가 밀레니얼 세대가 지출 소비를 줄이고 있는 14개 분야를 발표한 가운데, 우유가 그 중 하나로 꼽혔다.

최근 오트밀크부터 아몬드, 콩에 이르기까지 식물성 대체우유가 다양화되고, 유당불내증을 앓고 있는 소비자 등이 많아지면서 우유 대신 식물성 대체우유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 2020년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 5명 중 1명이 환경보호를 위해 식물성 대체우유를 선택하는 등 환경적인 이유로 유제품 섭취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초호화 웨딩보다 스몰웨딩을 선호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학자금 빛이나 높은 집값 때문에 주택 구입을 미루는 등 우유 소비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finance.yahoo.com, 8월 6일 >

[시장동향] 캐나다 유업체, 식물성 대체식품 제품군 확대

- 두유, 마가린, 코코넛 요거트 출시 이후 식물성 제품 다양화 추진



식물성 대체식품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캐나다의 최대 유업체 중 하나인 락탈리스가 식물성 대체식품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앞서 해당 업체는 식물성 대체식품 소비가 늘어나는 트렌드에 맞춰 두유, 마가린 및 코코넛 요거트를 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온타리오주의 시유 수요가 감소하면서 해당 지역의 유가공장 운영을 중단하고 식물성 대체식품 생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합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식물성 대체식품 소비 트렌드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오랜 기간 유제품을 생산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소비자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유제품 생산도 꾸준히 이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 출처 : newswire.ca, 8월 10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